

2000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生活福祉局

日時 2000年 6月 28日(水) 10時02分

場所 市民行政委員會室

(10時02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 또는 수행하고 계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감안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난 날에 처리한 업무들이 적절하였는지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과연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불충분한 답변 등은 어제 실시한 행정관리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을 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이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生活福祉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委員長 李憲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은 선서한 서약서를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 崔容洵 課長입니다.

地域經濟課 金容善 課長입니다.

環境衛生課 李漢龍 課長입니다.

清掃行政課 鄭倫漢 課長입니다.

(간부인사)

(參照)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生活福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이 있으면 진동이나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고, 어저께는 질의시간을 10분씩 했는데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은 20분씩 하겠습니다. 20분씩 하면서 20분이 지나면 제가 종을 한 번 울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질의라면 더 하셔도 좋다는 애깁니다. 그러고서 20분을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또 10분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걸리는 시간이 약 6시간 걸려요. 그래도 하다보면 전부 다 하시려면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먼저 사회복지과에 노인교통비 수당이 나가는 게 있죠? 월 3만원씩 그것을 현재 수령을 안 해간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洪起瑞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과장님들과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워드 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성의있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중에서 수령을 안 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숫자는 지금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洪起瑞委員 그러면 숫자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만약에 노인수당을 수령을 안하게 되면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한 분이 예를 들어서 명륜3가동에 대상이 500명인데 450명이 수령을 하고 50명이 수령을 안했을 때 그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社會福祉課長 崔容洵입니다. 지금 90% 정도가 신청을 하고 10% 정도가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본인이 싫다, 받을 필요없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洪起瑞委員 아니,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나면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사회담당들이 유선 상으로만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남동에 수령을 하지 않은 인원이 50명 같으면 사회담당이 독려를 했다는 것을 기안을 해서 동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홍보문을 보냈다는 근거가 나와야 다음에라도 그분들이 항의를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동에서. 다만 유선 상으로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금년 지나고 3년 4년 후에 와서 내가 65세가 되었는데 왜 노인수당을 안 주느냐, 4년 전 것을 소급해서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히 년도가 지나서 하게 되면 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년도 것을 지급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줘야 되는데 소급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휘말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들이 예를 들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A라는 사람한테 몇월 며칠날 이것을 홍보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기안을 해서 공문지를 뒤에다 한 부를 첨부해놓게 되면 그분들이 다음에 와서 항의를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구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실사를 해서 감독을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洪起瑞委員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교통수당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 구좌로 입금이고 신청을 안한 분들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독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했다는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현재 해놓으라는 말씀이신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각 동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근거를 놔두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다음에라도 민원의 여지를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5월 8일날 우리 구민회관에서 어르신네 노래자랑을 했었죠? 노래자랑을 했는데 노래자랑이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어르신들 노래자랑 하는데 저도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관계를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년에 이제 처

음 노래자랑을 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 중에서 작년에도 나와가지고 우승하신 분들이 금년도에 또 나와가지고 거기에도 우승상을 준다는 것은 중복된 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년에 우승하신 상을 받으신 분들은 뒤로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한 1천여 만원씩 들여가지고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전체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에도 이 비판의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종로구의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탁 회장도 이런 부분은 안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65세가 된 노인들이 우리 종로 관내에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들한테 쏟아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저희가 노래자랑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에 했었는데요 예산은 지금 1,000만원이 아니고 5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식사를 안하고 보내기가 뭐해서 중식 제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노래자랑 하는 데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 보컬팀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노래자랑은 노인분들의 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에 개최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로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비판의 기사를 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해놓고도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60세 이하만 시킨다면서요. 60세 이상은 대상이 안된다

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공근로사업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60세 이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단 5% 범위 내에서 전부 5%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 분들도 시킬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나 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된 사람들은 호적상에만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영세혜택도 못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공공근로라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제외가 되어서 공공근로도 못하고 취로도 못하고 갈 곳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라고 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60세에서 70세 사이는 충분하게 공공근로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되어서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2/4분기 공공근로까지는 저희가 약 1,100여 명 정도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부터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2/4분기 때 쓰고 남은 잔액하고 저희가 일부 있는 것 해가지고 3/4분기부터는 인력이 1/2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60세 이상을 너무 많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5%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시하고 보사부 쪽에 건의를 해서 10% 범위라든지 범위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생계가 보장될 수 있게 길을 터줘야지 사실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금 통장잔고가 8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洪起瑞委員 8억 3,000만원이면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예치를 했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한빛은행 기업신탁에다가 1년 6개월짜리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현재 이자가 몇 % 나오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이것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고 8.64% 정도의 금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저희가 잘 받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행정관리국을 감사하다가 우리 李東奎委員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자금이라는 것은 1년 6개월이 되어야 8.3%가 되고 1년 6개월이 안되고 1년 3개월에 인출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2% 내지 3%를 뺍니다.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1년 6개월의 변동금리로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수수료를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만 되면 전혀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일 때는 저희가 8.64%에서 2.5%를 공제하게 되고 6개월 미만에 해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저희가 3%를 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이것을 정기예탁으로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한 8% 이상이 더 나오거든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금 저희가 거의 8.64%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지원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딱 잘라서 해지를 못할 수 있는 정기예탁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저희가 6개월 이상만 하면 최소한 6%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만 하면 8.64%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자 받은 것을 이따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자수입하고 자금내역하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사립 노인정이 30개가 있어요. 이게 행정 감사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건데 사실 사립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을 안하고 우리한테 연료비나 이런 것을 타면서 운영하는 사립 노인정이 비밀비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나 정리가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작년에 1개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부실한 곳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현재 우리 1,2,3,4가가 그러니까 옛날 1,2가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인구가 칠팔천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렇죠? 1,2가만 했을 경우에는 인구가 칠팔천밖에 안될 거라고. 3,4가 통합을 해가지고도 1만명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서 노인정이 열 몇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인정은 등록인원이 28명, 21명, 25명, 20명 보통 20명대입니다. 20명대에서 노인정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같은 동네니까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로잔치 때 이 노인정에도 전부다 방문해서 격려금을 줬습니까? 구청장 격려금을.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어느 동은 노인정이 하나라 10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고 이런 부촌의 노인정은 일개 동에 노인정이 12개면 120만원을 쏟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못해요? 얼마든지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뭇 때문에 이렇게 열 몇개씩 놔두느냐 이거예요. 노인정 하나에 20명 나오는데 노인정 간판 걸어주고 여기에다 연료

비 지급하고 보조비 지급하고 가끔 격려금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社會福祉課長 崔容洵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반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조사를 다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것은 과감하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무한정 끌어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의지를 보이고 우리 청장님 동 초도순시 나왔을 적에 노인들하고 대화했을 때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도 못하고 있어요. 명륜3가동 노인정이 산꼭대기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못 올라간다 그거예요. 거기 노인정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0명이에요. 그런 것도 현재 어떤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밑으로 옮긴다는 추진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아직 계획서도 안 올라왔네, 다른 이화동 2군데는 노인정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명륜3가동 것은 아직 계획서도 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꼭대기 있어 가지고 노인들 올라갈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서 청장한테 숙원사업으로 거기서 즉흥적으로 해주겠다, 우리 과장님도 금년도에 청장님하고 같이 나오셨죠? 나와 가지고 청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지 산꼭대기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등산가는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이한테 30개 정도가 실제로 운영하는 노인정하고 같이 취급해서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금년 하반기에는 명륜3가동 노인정을 밑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동순시 때 나가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마는 명륜3가동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그때도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 지역은 주차장시설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

른 걱정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명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잡으실 거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금년 중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洪起瑞委員** 토지매입비를 잡아야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주지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안되잖아요? 예산을 잡아줘야 우리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아주 정확하게 10분을 하셨습니다. 아주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한 서류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일괄로, 누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파악이 안돼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서류를 좀 빨리빨리 제출요구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류가 늦게 제출되니까 괜히 회의만 지연되고 이러는데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아동간식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입니다. 지금 급식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저녁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배달이 가능한 데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도시락배달이 곤란한 데는 식당을 지정해서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구립 유아원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도시락을 배달합니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결식아동은 유아원 애들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미취학 아동이 몇 명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지금 질문하는 취지를 국

장님은 결식아동을 생각하시는데 朴鍾植委員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朴鍾植委員** 관내 어린이집이 66개가 있는데 애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0년도 예산 여기에 어린이날 기념 티셔츠를 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졸업식 같은 행사에 유아원 별로 주는 건 없나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있습니다. 총 구립하고 민간을 포함해서 총 32억 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시비가 96%입니다. 4%가 구비인데 행사성은 저희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원 졸업식에 예산이 있다면 어떤 데다 예산집행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 동승유아원도 있고 유아원 졸업식 때마다 내가 가서 축사를 하고 그런데 동승유아원 졸업식 때도 구청에서 오는 선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없느냐고 원장하고 내가 얘기도 했는데 없었어요. 동승유아원 졸업식 때도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있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업식 선물은 저희가 5명씩 시상하는 것이 있고 다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졸업식 때도 선물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승유아원 졸업식 때 분명히 없었는데요. 구청에 예산이 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유아원 원장하고 그런 여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세웠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나가야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다른 데에 유용되면 안되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유아원에 선물하는 것은 어린이날 선물

○**朴鍾植委員** 유아원 졸업식에 뭘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 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원래 우리 동승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노인정 부지로 13평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160여 명이 노인 정을 지어달라고 진정서를 올렸을 때 노인복지계장이 현장조사를 나가 가지고 유보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유보를 시키면서 노인정 부지를 주택과로 넘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시비 1억의 예산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 알아봤더니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노인정으로서 제대로 작품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건설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할 때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인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착공하면 바로 저희가 나가 가지고

○朴鍾植委員 그 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마로니에노인정이 지금 재미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규모는 조그만 해도 마로니에노인정이 한 층이 남아있어요. 원래 노인정 회장이 구학에 능통한 분이 되어 가지고 지하에다가 서당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회장도 바뀌고 해서 완전히 한 층이 비어 있는데 그것이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층에다 노인네들 그 인근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련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만들어주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朴鍾植委員님 말씀은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동 자치센터화 되면서 동에 체력단련실 들어가는 것하고 위치 같은 것을 봐 가지고 계획을 해서

○朴鍾植委員 위치가 아주 좋아요. 규모도 크지

않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한번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150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현황표를 보면 종로 1,2,3,4가동하고 창신2동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니까? 종로 1,2,3,4동은 의장이 사시는 동네이고 창신2동은 창장이 사시는 동네라 이렇게 많은 건가?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 두 군데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표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1,2가동은 피카디리 극장 뒤에 쪽방지역이 있고 좀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많고요. 창신2동도 역시 고지대이기 때문에 곤란한 분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저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1,2,3,4가동하고 창신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동감사 하면서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보니까 우리 이화동 같은 지역도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대상자 말고도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동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진달이 되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도 10월 1일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위 내면 지금도 과감히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요. 지난번 5월말까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지금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이 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2급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한다. 156페이지

지, 우리 지역도 2급 장애인이 여럿 있거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장애인이라고 전부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은 거택 자활 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인 경우에 월 4만 5,000원씩 지급한다든지 그 기준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관내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등급하고 생활정도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장애인 수당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화동에 한 사람한테 6,000만원 대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대여를 하는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희 구비는 없고 국시비 중에서 가구당 6,000만원까지 한도로 저희가 용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 장애인 배우자 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지금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오면 확인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예를 들어서 6,000만원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보증인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6,000만원이 아니고요. 재산이 6,000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

○朴鍾植委員 그러니까 대상이 2000년도에 이화동에 한 사람인데 6,000만원이라는 것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이 아닙니까? 6,000만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아닙니다. 1,200만원씩 나갑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왜 실적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洪起瑞委員님께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공근로가 어려운 분들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거양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구사업에도 최대한 응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나가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자 1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보도블록 한 15장 떼어놓고는 옆의 우체국이나 은행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 놀다가 점심 때 되면 밥먹고 또 오후에 어영부영 어디 가서 놀다가 15명이 하루에 보도블록 15장 떼고 마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없다고 해도 돈지랄한다고 욕들을 하면서 지나가요. 아무리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업이지만 그 인력이 우리 종로 복지건설에 응용이 되어야 될텐데 완전히 노는 판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관심있게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99년 회계년도 지출결의서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어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지금 준비하러 왔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빨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洪起瑞委員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다음은 鄭泰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정오표를 주시면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의 정오표는 무성의해서 그런지 오자가 너무 많은데도 하려면 미리하든가 지금 연세 드신 위원님들이 체크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렇게 정오표를 갖다놓을 것 같으면 당장 직원들이 와서 정오표를 체크해주면 될텐데 그런 성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정오표가 나와 있는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저녁에 보실 것 같아서 어제 저희가 나누어 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鄭泰淳委員 어제 행정관리국은 몇 틀리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질책을 받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바로

사과를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그런 배려까지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앞으로는 오탈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과장들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오탈자는 있어서는 안된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중에 그런 것은 있으면 안된다고 저도 강력히 강조를 하고 두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폼을 새로 그리지 않고 작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있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전부다 해가지고 자료에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추후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 정오표를 갖다놓는 시간이면 담당직원들은 페이지를 확인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체크해서 정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어제 저희가 해드렸는데 자료를 어제 시간이 남으시면 저희가 직접 정정해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고쳐드리겠습니다' 해야 원칙인데

○鄭泰淳委員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정오표가 있으면 페이지 몇 짜줄까지 해서 체크가 정밀하게 되는데 그런 성의도 없이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와서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 찾게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泰淳委員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켜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금리 인하까지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급률이 양호한 편

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추후에는, 양호한 지역만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진척되는 사항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저희 도시가스 문제는 시민생활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저희 종로구민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금년도 1월달에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저희 구의 구민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대책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저희 대부분이 극동가스하고 평창동 쪽, 부암동 쪽 일부를 서울도시가스 2개 회사에 양분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자기네들 수익성 사업에, 수익성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다보니까 저희 종로구가 보급이 상당히 많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종로구는 골목이 상당히 협소하고 평창동 같은 지역이라든가 창신동 일부분은 암반층이 있어 가지고 난공사구간이고 또 평창동에는 집들이 말이죠 크다보니까 수요가 분산지역이라고 합니다. 마는 상당히 공급관에 비해서 대상가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종로1·2·3·4가동 같은 경우는 영업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특히 영업소에서는 도시가스가 화력이 약하답니다. LPG에 비해서.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LPG를 주방장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스관이 들어와도 공급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가정용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용에서는 그런 경향이 일부에서 있고 또 환경개선지구라든지 재개발 지구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사항으로 제약을 받아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가 도시가스 관계 회사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도 갖고 이제는 우리 구민들이 우선이다, 당신들 사업성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도시가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보급률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했고 만약에 어떤 당신들 수익성만을 따져 가지고 보급을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도 브레이크를 걸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용자하는데 있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를 3,500가구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예상 추계라면 상반기만 목표 대비 70% 넘게 75% 달성했습니다. 마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1,000여 세대 가구 정도를 더 추가로 시설해서 계획에다 추가로 잘하면 75%가 아니라 78% 선까지도 이렇게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70%까지 일반적인 저희가 기금 용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난공사지역에는 100%까지, 그 다음에 이자율도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7%에서 6%로 1%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가들이 가스 공급을 받는데 저희 구민들이 용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된 바 있고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는 지금 평창동 같은 경우에 배관연장이 100m당 25가구가 최소한 넘어야만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사업성에 안 맞더라도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나 이제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완화하자, 저희가 25가구에서 15가구 내지 20가구 정도로 완화하면 저희가 의무규정에 있는 규정이 바뀌어 짐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시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에는 또 공급관이 지금 한두 집밖에 없는데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많은 공급관

을 상당한 먼 거리를 끌고 가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급회사가 뭐 한 너댓 집 보겠다고 수백m씩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요가들이 내가 자비로 일부 부담하겠다, 돈을 더 내고라도 도시가스를 내달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규정으로는 책정된 공사비는 공급관의 경우에는 수요가가 부담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고쳐 가지고 만약에 수요가가 원한다면 일부를 수요가가 부담하더라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이 규정도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도시가스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문도 받습니다. 마는 도시가스는 공급을 요청한 주민들의 애로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핵심적으로 챙기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좀 강하게 트라이(try)를 해서 지금 상당 부분의 민원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수요가가 부담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당초 서울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鄭泰淳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에 몇 군데를 가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인별로 해서 가구당 2,000만원 이상씩 해서 되는 가구들이 많던데 그것은 비공식이에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글썄요 그것은

○鄭泰淳委員 여러 집들이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못하니까 어떤 공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그런 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당신네가 부담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안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한 제도는 없는데 그런 건 비공식적인 거네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관내에 대한 것은

없고 아마 본인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관을 묻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진동 같은 데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관이 안 들어왔는데 전 서울은행 건물인가요? 거기가 일부 공급되고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직접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2,000만원 이상 들여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하는 거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 경우는 큰 빌딩이나 다량으로 쓰는 그런 데는 아마 가능하겠지만 개인 집에는 없을 겁니다.

○鄭泰淳委員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주민이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면 제일 난감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해달라고 하면 무리한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고 하기 때문에 영리에 맞지 않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급기야는 지역사업은 해야 되고 독려는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의원들도 의원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주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가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시켜서까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부여해서라도 하자는 이런 머리싸움인데 그런 의미에서 필드에서 뛰는 의원이나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회사가 대다수의 가구가 원하면 영리만 되면 먼저 해달라고 하는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여기는 타산이 맞겠다고 하면 이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얼른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 데 다 하고 나면 몇 가구 남은 데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애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타협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답변은 그만 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청소과 문제 때문에 전임과장이 고충이 무

척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해소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인 반응이 많은데 지금 세종로에 있는 적환장 아시죠? 그 부분에서 인력이 적어서 작업하는 시간 때문에 꼭 보면 아파트가 바로 있기 때문에 소음은 밑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잠자는 시간에 해서 소음 때문에 또 악취 때문에 고충을 겪어서 어느 정도 알아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별도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곤란하다는 것은 다 알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는 악취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작업시간이 장시간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즉시 직원을 보내가지고 현장에 가서 청결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상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한번 오셨던 그분께서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는 호의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충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아파트에서도 소음이나 그런 문제로 새벽작업을 했던 것을 조금 늦춰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들은 목표가 가장 작업시간을 최소화하고 작업인력을 축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악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鄭泰淳委員 그것이 어떤 일시적인 지도감독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런 데에다 적환장에서 작업하는 차량은 대

형차량이라 고리를 딱 걸었다가 ‘꽝’하고 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대형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아파트, 미도파, 동아아파트 있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서, 전자에는 구청에 집단으로 와서 데모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우리 종로구가 안고 있는 현안이 적환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만 피해를 보느냐,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도 동반해서 하자는 그런 민원이 타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억지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쪽에 가면 민원인이 있는 지역이 가면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하고 ‘항상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하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알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사회복지과! 千相旭委員님이 질의하시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못하시나요?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먼저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제가 먼저 하게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李東奎委員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모두 계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鄭泰淳委員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여기가 무슨 설명 연설하러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이 설명해주신 제안 자료에 보면 17쪽에 노인 위생비 지급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보면 지원 기준하고 연간 계획과 지급 실적이 있는데 그 차이가 연간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 이것이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절반이 좀 못 미칠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절반이 못 미친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데요. 18쪽에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하는 것도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전체 실적은 저희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부 자료를 뽑았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그래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군요. 전년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건강음료 제공한 것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실적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전체 실적은 지금 제가 전년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모르시고. 그것도 국장님께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소소하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鄭泰淳委員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았고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주민들이 업자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라면 제가 몇 건 예를 들

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지도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사실 공사 감독은 회사 측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못하고

○**李東奎委員** 공사 감독은 아니고 지도감독. 공사 감독도 해야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명예감독관

○**李東奎委員** 명예감독관한테만 미를 사항이 아니죠. 지도감독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명예감독관 임명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1m 20cm를 묻고 있는가, 또 관은 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 지도감독을 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李東奎委員** 파악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안하십니까? 안하신 거죠? 지금 새로 오셔서 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금 공사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가끔은 나가봅니다마는 소소한 것까지는 도시가스 회사에

○**李東奎委員** 소소하더니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소소한 부분은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전문 테스트기계를 갖다놓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관 같은 것을 연결하고 압 시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가 모르고

○**李東奎委員**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깐 그렇게 하고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가서 의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 묻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묻히고 있는가를 검토하신, 또는 그런 것을 가서 보시고 감독하신 관련대장이라든가 있는냐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현재까지는 공사의 기술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동 측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다하기 때문에 그 감독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

회는 물론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공사가 주민들한테 민원의 요지라든가 그런 말썽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李東奎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토록 부실공사를 할 동안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책임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시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LPG 분야가 따로 있고 다른 분야가 있어서 연료계 쪽에서 한 사람이 도시가스 전문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가서 지키고 있으면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관리 감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과장님! 길게 답변 안하셔도 되고 사람이 없다는 구실을 대지 마시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공익요원이라도 데려다 쓰시고 공공근로자라도 데려다 쓸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에다 행정관리국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공급을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분들이 인력을 필요로 해서 한번 달라고 해본 적도 없죠? 왜 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인력이 없다는 것은 그런 구실밖에 안되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감독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잠깐 계세요. 그 답변은 몰라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제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대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폭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전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뇌지고 있죠? 외딴집이라고 해서 900만원, 1,000만원 관을 물어야 되니까 내나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한테 아직은 접수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없죠? 모르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왜, 현장을 안 나가보면 모르죠. 그러면 그 주민은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안 놓으면 영원히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원, 1,000만원 관을 물어야 되니까 관 값을 달라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런데 위원님!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수탁 공사가 의무규정이 폐지되어 가지고 수요가가 자기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맞아도 해야 되지만 지금 금년도부터는

○李東奎委員 그러면 좋아요. 전년도 것을 얘기합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그와 같은 식으로 놓은 것은 그렇고 놓고 억울함을 당했는데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시고 전년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李東奎委員 그러면 전년도에 당한 사람은 당해도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라 그겁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만약에 부당한 공사비를 징수했다든가 규정 이외의

○李東奎委員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조사를 해봐가지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규정상 몇m 이상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규정상 몇m 이상 벗어나는 것은 개인 수요가 부담이라고 하면 꼭대기에 외딴집이 한 50m 떨어져서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는 난공사니까 못 들어갑니다. 떨어져 못 들어갑니다. 떨어져 안됩니다.' 하고 구실을 대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대서라도 한 사람들이 약 1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에서도 몇 집 담이 터졌다고 못 들어간다고 구실을 대서 돈을 더 받아먹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작년도나 예년도 경험이 미천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도시가스 공사 측의 업자들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고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열불이 날 정도로 속이 뒤집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정도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구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래서 현지에 나가봤더니 이 규정이라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업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구 단위에서 어떤 업자들의 횡포라든가 도시가스 측에다 어떤 크게 압력이라든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미천하다보니까 첫째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李東奎委員 그러면 서울시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탁자 제도도 말이 많고 해서 서울시에서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

○李東奎委員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6개월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을 텐데 건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하셨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졌고 크게 문제가 되어서

○李東奎委員 그러면 전년도에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억울해도 그냥 지나가자?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위원님! 그렇습니다. 억울한 요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극동도시가스가 당신이 싫으면 말아라, 좋으면 하고 이런 선택권을 구민들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말입니다. 고가의 돈을 들여서 돈보파리를 갖다주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구실을 삼아 가지고 돈을 좀더 주는 사람한테 갖다 놔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정하셨죠? 서울호텔인가 어딘가 거기가 하나 냈다면 서요? 청진동에. 특혜를 준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 깔려있다는 등 하수관이 있다는 등 해서 구실을 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타지역보다 세대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공사단가 금액을 높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왜 내용을 묵과하고 방치시키느냐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에서 안하겠다고 그러면 회사하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

는 것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도 속이 터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가와 공급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하겠다고 하는 게 되고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그냥 지금 현실은 그런데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묵인은 아니구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딱 나와있으면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표준공사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그래 가지고 모든 경제의 원리가 그렇듯이 수요가 거시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도

○李東奎委員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손발 놓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가 없고 시에 보고해 가지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해서 부당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사를 시켜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李東奎委員 내가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내가 공무원 하고 말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해주시면

○李東奎委員 지역이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나가실 필요도 없어

요. 직원들 시켜 조사해 보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억울한지 조사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손발을 놓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의 의원이 얘기 해서 정말 조사를 하는구나, 또 조사를 했으면 결과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가의 돈을 주고 억울함을 당했다면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왔나요? 준비가 안되면 계속 늦어져서 오늘 늦게 까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자료 오는 대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千相旭委員님이 양보해 주셔서 나무도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서 내가 관할 등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李東奎委員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동네 도시가스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횡포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하는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자들도 와서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걸 70만원에 하고, 계량기에서 주방 또는 보일러까지 가는 것을 6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달라고 했는데 경쟁이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과 대화해 가지고 2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대 하나당 60만원 하던 것을 5만원을 깎아 가지고 55만원에 하고 그래서 가격경쟁을 붙이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어졌어요. 이것은 바로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우리 委員長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지대라는 것하고 암반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실을 댈다 얘기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바로 그것이 횡포 아닙니까?

○李東奎委員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李炳滿 局長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안됩니다. 그것도 지출결의서인데요. 제가 중앙의 조직도 감사해 보고 하지만 가져와 그러면 바로 들고 오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지출결의서 들고 오면 되거든요. 있던 것 행위서류를 들고 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10시에 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고 지출결의서를 가져오면 돼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제가 자료목록을 못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千相旭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가. 뭘 가져오라면 들고 오면 되는데 왜 만들어 오느냐 이거야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지출결의서가 재무과에 있어 가지고 찾아오느라고 늦는 것 같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몇 시간씩 걸려요?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만들어 오면 안돼요. 내가 아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혹시 중복되더라도 질문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님! 자료 172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은 1건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종로의 폐수대상업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위에 폐수배출업소 현황 해서 말입니다. 병원, 인쇄, 실험실, 세차, 염색, 도금, 조립제품제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을 취급하는 데가?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폐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청산가리입니다. 치명적이고 환경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도금이나 상패, 우리 종로에는 상패업소가 많습시다마는 그게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에 조립제품제조에 상패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녹여서 은을 추출하는 업소가 종로에 많습니다. 금은보석상이 다는 아니지만 금은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엑스레이필름 같은 것을 병원에서 수거해다가 녹입니다. 녹일 때 독성이 강한 청산가리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소량만 먹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 것을 배출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우리가 전부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가적으로 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은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처리과정에서 금이 추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폐수배출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독성이 강한 약품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다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출했던 폐수를 전문업체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로 실천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또 세차는 별도로인데 염색업체에서도 상당히 심한 독성이 있는 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대규모 염색업체는 없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퍼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을 염색하는 염색공장이 있는데 거

기서도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염색업소는 우리가 종로 5,6가에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시장이 많죠.

○千相旭委員 이런 데도 가보면 폐수정화시설이 이 다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저희가 신고된 것은 1일 배출량이 100ℓ 이상이거든요. 이 이하 소규모는 보존법상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이 늘 우리가 감사 때나 평상시에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규정이나 법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재량권을 발휘해서 용서해줄 것도 있고 법에는 저촉이 안되지만 단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의 재량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윤보선씨 공덕귀가가 시 문화재인데 종로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99칸짜리 집인데 바로 담 옆에 4층짜리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따지니까 그것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 이거예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심의를 하느냐,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심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재량권을 남용해서도 안되고 또 축소해서도 안되거든요. 그럼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100ℓ 이하는 단속이 안된다고 단속해야 될 사항을 배제해 버리면 안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폐수의 독성은 한 통으로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극물입니다.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千相旭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독소도 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千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떠나서 소규모 업소라도 저희가 7월중에 일제 단속을 한번 해서 폐수가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생과에서 폐수방출업체 연간 단속실적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연간이 아니죠. 1년 반 동안이죠. '99년도부터 2000년까지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작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千相旭委員 자료에는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1년 5개월 동안에 단속을 하나밖에 못했다는 얘기인데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아니요. 2000년에 들어서 위반업소가 1건이 있었고요. '99년도에 위반업소가 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염색업소가 있다든가 도금업체, 제조조립공장 주변에 가서 말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이것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해서 그 폐수를 다른 곳에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것이 한번 경고해서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해서 말입니다. 한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너무 미흡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우리 과장님 인격으로 봐서 덕으로 다스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덕으로 다스릴 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한 법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라도 말입니다. 단속을 하세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렇게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다음 감사 때 이런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세요. 이것은 실적을 많이 올릴수록 좋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위생과 사항인데 어제 감사를 해보니까 위생과에서 위반업소 단속을 했는데 재판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재판에서 14건을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이것은 정말 한심한 행정조치입니다. 어떻게 재산권 침해를 해서 재소를 당해서 패소를 하느냐, 소송 1건당 변호사 선임요금의 기

본이 250만원입니다. 몇 건을 변호사 선임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1건당 들어갔다고 봤을 때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권위도 떨어져 버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소송대비해서 전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2000년도 접수현황이 5월 31일까지 총 20건이 접수가 되어서 사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진행건수가 16건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千委員님 말씀대로 원고승소판결 저희가 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증가된 사유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요. 이것은 우리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으로 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업주한테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보면 한 업소에서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업소가 입는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분들께서는 영업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권한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소송 건이 많아서 패소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그렇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원고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식품위생법상 소송 건 중의 대부분이 원고가 승소하는 이유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모든 반증자료도 제공하고 또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틀림없어도 식품위생법의 규정은 행정처분에 관한 내부사무준칙 규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으로 그런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당하는 손해가

너무 많다 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 2개월 이하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것은 본질이 뭐냐하면 왜 허가취소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시켜서 사생활을 요즘 경기가 없어서 살기 어려울 때 생활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하고 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잉단속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고 과장님은 딱 얘기만 하시네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千委員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잉단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잉단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경찰에서 청소년음주 제공이라든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든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올 경우에 저희가 처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과징금으로 처리가 안되고 영업정지만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처리지침에 의해 보통 2개월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조종을 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해줘라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해서 해줘라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가 완전히 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고 저희가 과잉단속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변호사 수임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소송은 직원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사안이 중요한 사안 같으면 저희가 한두 건 정도 변호사 선임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건 전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

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패소만 14건이고 조정사건은 그 외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제기한 것이 없어요.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허가취소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더라구요. 허가취소가 14건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아닙니다.

○千相旭委員 내가 분명히 봤는데 184쪽에서 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봅시다. 68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소송관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량권 범위에 관한 사건으로 소송당한 것이 14건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처분이 패소된 것이 12건입니다. 14건이 아니라 12건이구만, 14건 가운데에서 12건을 영업허가취소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허가취소는 아닙니다.

○千相旭委員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허가취소가 나와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재량권 범위 그 다음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가 아니고 팔호해서 허가취소 처분소가 1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것이 잘못된 자료입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하는 얘기에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같이 포함해서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영업정지하고 허가취소가 같이 처분취소 소송인 것입니다. 12건이 다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마는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千相旭委員 이 자료가 '99년도 자료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184페이지에 보시면 단란이 14개, 일반업소 30개 해가지고 허가취소가 44건입니다. 이중에서 전체

가 다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허가하고 영업 정지도 저희가 작년에 400건을 했는데 일부가 들어와 가지고

○千相旭委員 허가취소가 몇 건이라고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허가취소가 작년에 44건입니다. 일반음식점, 단란 해 가지고 44건

○千相旭委員 그렇게 많은 사람을 허가취소를 해 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 살아갑니까? 허가취소가 44건에다가 영업정지가 311건, 시정지시는 이해가 갑니다. 250건 이해가 가는데 영업정지도 이해가 갑니다. 허가취소를 해버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이 양반들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허가취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분은 그렇게 합니다. 소송에서 일부 살아나는 사례도 있고 합시다라는 저희가 그 지침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습니다.

○千相旭委員 국장님! 허가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B로 개업을 합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동종은 안됩니다.

○千相旭委員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허가취소라는 것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동종은 아니고

○千相旭委員 그러니까 A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허가취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B로 바뀌버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같은 업종은 안되고 다른 업종으로는 가능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千委員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해서 1차에 2개월 맞고 2차에 3개월 맞고 3차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단란주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란주점에서 법으로 식품위생법상에 접대부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단란주점에서 접대부가 없는 곳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3차에 걸려서 우리 식품위생법의 처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재량권이 많아서 허가취소를 마음대로 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말이죠. 단속할 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1건밖에 단속하지 않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목을 쳐버리는 그런 행정조치가 대비가 됩니까. 과장님은 대비가 안 됩니까? 단속할 것은 안하고 안해도 될 것은 했다는 그런 속된 얘기로 본 위원들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폐수를 단속하는 쪽의 실적이 좋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이 감사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당했던 이 내용은 우리 구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청은 행사는 잘 해요. 체육행사는 참 잘하는 구청이야 뭐 하면 전부 일등이야.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밑바닥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그리고 지적을 하면 시정이 안돼요. 그냥 그 상태로 나가버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말입니다. 종로구청 직원들 잘하시기는 잘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 지적이 잘못된 지적인지 잘된 지적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千委員님 잘된 지적이십니다.

○千相旭委員 잘된 지적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저희 종로에 5,400여 업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영세한 업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로 적출이 되어서 우리가 처분해야 될 경우에 딱한 처지도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千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폐수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한 단속에 더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는 꼭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하반기 때 우리가 일제히 단속을 해서 결과는 추후 우리 千委員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 어려운 시기에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잘못된 것을 계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잘 알겠습니다.

○千相旭委員 12시 되었으니까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증식과 자료점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59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소관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 관계가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경로당 노래방 기기가 4대가 올라왔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배려를 해서 28대로 했습니다. 구립은 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노래방 기기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뭘 했는지 가보니까 설치는 다 되었어요. 그러면 노래방 기기 설치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이것은 우리 鄭興鎭 廳長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의원들 인기도 올라가고 그것을 텐데 좌우지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와가지고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다른 데를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가지고 해줘도 언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저희가 노래방 기기를 사기로 준비를 해놓고 경로잔치 전에 사드리려고 좀 촉박해 가지고 기계 사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洪起瑞委員 물론 노래방 기기 하나만을 예로 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李炳滿 국장이 안 계셨을 때지만 에어컨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올리려면 다같이 올리라는 거야. 구립노인정은 다해야지 그것도 2대인가 3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해줬어요. 그것도 언제 에어컨을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행정관리국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초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게 되면 의장님이 못 나오시면 부의장님, 부의장이 못 나오시면 운영위원장, 시민행정위원장, 또 그분들도 못 나오시면 그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표창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이런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을 초청만 해놓고 어디 한쪽 구석에다 몰아놓고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의원님들 배려를 그래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챙겨서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명예직 무보수로 인기 하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챙겨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서 정식으로 건의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명심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 관리가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의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청소년 문화센터 말입니까? 하루에 80명씩 됩니다.

○**洪起瑞委員** 하루에 80명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나면 지금 현재 저녁 11시까지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11시까지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렇죠? 그런데 요즘 고3짜리나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오게 되면 한 9시 되거든요. 보충수업을 하고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나면 10시가 된단 말입니다. 가서 1시간을 앉아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데요. 그러나 사실 독서실은 새벽 1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능직을 거기에다 배치를 하니까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독서실 이용률이 더 많지 않겠나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수요자를 조사를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에도 나와있다시피 저희 관리인원이 5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센터는 우리가 관리인력 관계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있는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용역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1명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24시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면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으로 좋은 시설을 해줘놓고 이용률이 적게 되면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67쪽에 보면 정부 대여양곡 동별 회수실적이 나와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대여양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모처럼 쌀을 수입을 해다가 이 쌀을 소모할 데가 없으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줘서 먹어만 줘도 고맙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정부에서 대여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주다시피 했는데 이게 모르면 몰라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으면 모든 것이 시효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만 끝까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표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미회수에 비해 회수율이 96.9%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장기간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상환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2월 20일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 정부에서 회시가 오기를 그 당시에 관계법을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여를 해주는 것만 중점을 두고 법률을 만들다보니까 결손처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 관계법을 개정할 때 회수 불가능한 원인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洪起瑞委員** 이게 결손처분이 되어야지 아마 이 세상이 아니고 저승으로 간 사람이 3분의 2는 될 거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것 중에 거의 사망하시거나 또 우리 관내에 안 살고 행방불명되었거나 그런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법 정비가 되면 결손처분을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것이 빨리 되어야지 자꾸 받지도

못할 걸 명칭만 걸어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가주시고, 다음에 176쪽에 보면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 관내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는 5월 30일 현재 집단급식소는 모두 89개이고 또 도시락 제조업체가 작년까지는 5개였는데 이게 전부 장사들이 안되니까 폐업을 하고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우리 구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날씨도 덥고 아주 식중독 사례나 음식 부패 폐기물 같은 것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내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김밥집하고 냉면집을, 업소 규모가 적습니다. 120㎡ 이하의 업소 300여 개소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식중독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부패라든지 대형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조리사중앙협회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내일입니다. 그것도 내일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179쪽에 보면 수질환경 보전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의 수돗물은 질이 좀 어떻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바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수돗물을 마십니까? 생수를 드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는 지금 생수를 안 사먹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洪起瑞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면 제가 우연히 청와대 앞을 지나는데 청와대에 생수통을 실은 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를 하면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데는 생수를 들여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생수가 들어가고 국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면 이게 말

이 되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최하 말단에 있는 국민이 생수를 마셔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나 거기에 고위 국가공무원들은 수돗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당한 걸로 보지 어떻게 해가지고 청와대에 생수통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수질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것을 못 믿고 생수를 먹지 않느냐는 얘기지.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환경오염도 배출 허용기준이 오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거지 먹는 물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질관계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보건소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구청 환경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요. 약수터 그런 것 관리. 누가 하나고 하나까 구청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보건소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감사를 안하기 때문에 서로 떠미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렇지는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환경과에서 챙겨가지고 가끔 종로 사랑이나 케이블TV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한 것을 공표를 하세요. 공표를 해서 '자, 우리도 마셔도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을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서, 청와대에 생수물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다음은 우리 자치구 관내의 복지시설 이게 사실 포천에 있죠? 이런 데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문을 갔다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을 파견하게 되면 거리, 시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사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속해있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관리를 해야 할 바에는. 그래야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지도감독이 되지

있는 곳은 포천인데 그것을 어떻게 종로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하느냐는 거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도 생활복지국장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그 전에도 그 실태를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불합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을 통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점검한다는 것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씩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이런 비능률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문의가 오고 실태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도 그 복지법인의 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후년 안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속히 조치가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각 동의 독거노인들한테 우유 배달하고 있죠? 매일 배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배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애깁니다. 이틀에 한번씩, 사흘에 한번씩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독거노인들 생활에 이상이 있느냐, 환경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하고 확인을 다 못하니까 배달하는 아줌마들이나 우유를 하는 분들이 이 우유가 쌓이면 그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고

없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 행정감사 때 모 동을 나가봤어요. 이틀에 한번씩 사흘에 한번씩 배달되고 있어요. 이 지적사항이 벌써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동사무소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취지를 잘 알고 이런 것은 독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애깁니다. 그렇잖아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맞습니다.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7월 1일부로 명륜3가동이 민간대행업체로 쓰레기가 넘어가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활용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이미 판매소에 바꿔놨습니다.

○洪起瑞委員 판매소는 바꿔놨는데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미 사놓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벌써 많은 양을 사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걱정을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따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교환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륜3가 유림회관 앞에 제일 문제거리가 적환장이 아닙니까? 어느 동이나 적환장 때문에 그런데 더구나 유림회관은 사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명륜당' 하면 세계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적환장을 현재 구민생활관 옆에 적환장이 크잖아요? 지난번에 혜화동에 金容善 洞長이 있을 때 만들어놓고 간 건데 거기는 차가 몇 대씩 들어가

서 해도 보이지도 않고 괜찮던데 그쪽으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관련사항이네요. 26페이지 무단쓰레기투기 단속 추진 결과 단속 실적에서 6,945만원이 과태료 부과는 올해 금액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올해 금액입니다.

○**劉燦鍾委員** 작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작년도 것은 감사자료 191페이지를 참조해보시면 구 자체하고 동을 총계 해서 1,311건에 금액이 1억 1,725만원입니다.

○**劉燦鍾委員** 홍보 실적인데 캠페인 4회 240명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했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실제로 그 캠페인 같은 것은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인한테 주로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가능한 현장의 미화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나 이런 음식물 수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현장의 미화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각종 마찰 없이 권장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劉燦鍾委員**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단속은 합정단속이 있습니까? 예방의 어떤 단속이 있습니까? 단속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일단은 저희들이 제도 중

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찰이 있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이렇다 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고 현장 단속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합정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제도 중심이라면 어떤 시스템이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저희들이 미화원들이나 지나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젖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있고 그러면 이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포매립지에서 정지를 당한다고 그 사항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과태료 부과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과태료 부과절차는 현장 미화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증거물을 보고서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10만원짜리를 그 과정에서 부과를 하고 그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면 완료가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劉燦鍾委員**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이의신청은 본인이 구청으로 직접 와서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劉燦鍾委員**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이것은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단속증거물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주로 저희들이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된 것을 뒤집습니다. 뒤지다보면 그 집에 배달된 우편물이 가장 많은 증거물이 되고 그 집에서 작업하고 남은 부산물들, 주로 그 집에서 나온 이름이나 주소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 식당 같은 데는 식당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주로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조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과태료 부과에 의해서 적발된 쓰레기 유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조그마한 5ℓ 미만의 검은 용지라든지 그런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일단은 모든 쓰레기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상습지역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劉燦鍾委員 쓰레기 종류가 유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쓰레기는 모든 쓰레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쓰레기가 해당이 됩니다.

○劉燦鍾委員 유형을 한두 가지 얘기해봐요. 쓰레기 규격봉투 단속의 실태가 있을 것 아니요? 길 가다가 쉽게 보면 나무책상이 버려진다거나 아니면 일반 가정의 생활쓰레기 5ℓ, 10ℓ 짜리가 아까워서 조그마한 비닐봉투에 쓰레기나 휴지를 버린다든가 그래서 단속원을 시켜서 뒤져가지고 한다든가 유형이 몇 가지 있을 것이 아니요? 잘 모르면 뒤에 계장들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하세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유형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규격봉투가 아닌 모든 봉투에 버린 생활폐기물이 다니까 유형화라고 하면 곤란하고 음식물도 있고 먹다 버린 또 쓰다버린 휴지나 모든 일반 폐기물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유형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런데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O, X만 얘기하세요. 아니면 얘기가 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단속 주대상이 주택가 골목의 조그마한 5ℓ나 될

까, 쉽게 보면 무단쓰레기 해가지고 편지봉투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뒤져서 그것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사진도 첨부해서 무단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10만원씩 부과하죠? 통상적인 예가.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렇습니다.

○劉燦鍾委員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난잡한, 쉽게 보면 일반인들이 제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소한 달동네 내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5ℓ가 지금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이삼백원 하나요? 판매가격이. 그것이 아까워서 아줌마들이 수퍼에서 물건 사고 상점에서 사온 그런 부분에서 버린 부분이 허다한데 또 아니면 고의든 자의든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어떤 심의기구도 없이 이의신청도 없이 '컴퓨터에 입력되었으니까 안됩니다. 사진에 찍혀져 나와서 안됩니다.' 무단투기 내역에 보면 편지가 있고 주소가 있어서 확인해보고 아니라고 해서 다시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님! 고시 출신이죠? 행정고시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지방고시입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행정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과연 이것은 객관성이 있고 타당한 것이냐, 당진 청소행정과장님 논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들의 시각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 동네 골목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요즘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쪽 쓰레기를 치우든가 적발을 하든가 하는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집중계획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는 종로통의 음식점, 상가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매일 순찰을 하고 주택가는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만 하는 실정입니다.

다. 실제로는.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도하고 홍보해나가는 차원이고 실제로 그 접수가 만일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원으로 가면 그 수익이 우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유예시켜주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처리기한으로 해가지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劉燦鍾委員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만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이 부분을 뒤져가지고 단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담배꽂초만 버려도 5만원 과태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劉燦鍾委員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편지가 들어있으니까 편지 주소까지 확인해 가지고 동명이인인지 확인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관련근거를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洪起瑞委員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8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대행구역 확대실시 아마 청소대행이라 함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한 동에 1년 판매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이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4억이니 5억이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대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설에 의하면 모 의원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었다든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설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劉燦鍾委員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대행구역 확대는 청소인력의 인건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대행을 주는 것이 청소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행구역을 주었고 또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회의 질의 때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원이 247명으로 정원이 확정되었고 더 이상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청소인력

이 전체 대행구역을 빼고 나머지 구역을 하기에는 벅잡니다. 거기다가 7월 1일부터 한다 또는 10월 1일부터 한다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원 정원이 있고 또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불시의 집회 같은 것이나 특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원을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대행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대행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대행구역을 한쪽부터 준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주다보니까 어느 동은 분리되어 가지고 일부는 대행구역이고 일부는 대행구역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하자 해 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창신동, 명륜동, 승인1,2동, 혜화동, 창신2,3동 이런 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청소대행구역을 기존에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행구역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새로운 사람을 하게 되면 장비나 인력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더군다나 차고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구역을 분배를 해줄 것인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劉燦鍾委員 국장님 답변 중에 잠깐만요. 조금 전에 3개 업체한테 준 이유를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비, 인력 부분을 왜 담당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업체의 주차장 관련시설이나 장비, 인력 부분은 담당 국장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청소대행업무를 신용이 없고 아무 장비 같은 것도 없는 데다 입찰을 해서 주게 되면 그런 데는 저희가 첫째로 믿을 수가 없

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劉燦鍾委員 청소대행구역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청소대행을 하겠다고 달라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해서 7월 1일부터 3개 동이 똑같은 업체한테 다 나가느냐 이거예요. 정책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세요. 그에 관련된 회의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정책 결정한 회의 내용하고 수의계약한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져오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자료 가져오세요.

○委員長 李憲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려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먼저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묻는데 지금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모든 결재문제에 있어서 서명하고 결재를 해주는 단계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전결사안에 있어서 답장을 맡은 사람이 전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무계장이 하나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주무계장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검토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주무계장 결재란이 있어요. 있는 건 뭐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것은 결재가 아니고 협조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협조입니다. 협조란에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아! 협조 그러니까 결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애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날인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안 할 이유는 없죠. 거의 다 하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담당계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라든지 휴가라든지 토요일무라든지 이럴 때도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폐수수질검사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폐수수질검사 의뢰서에 보면 결재라는 파란도장으로 해 가지고 2000년 3월 30일 환경위생과 찍어 가지고 이 의뢰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같이 붙는 다른 서류에는 그와 같은 도장을 찍어줍니까? 안 찍어 보냅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무슨 도장을 말씀하십니까?

○李東奎委員 여기를 보시면 파랗게 찍혀 있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아! 관인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게 있어야 어느 부서에서 누가 보내고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찍는데 의뢰서에만 찍혀있고 나머지 따로 붙임 같은 데는 같이 안 찍어줘도 되느냐 이거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따로붙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있는 것은 왜 찍은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6개월 됐습니다.

○李東奎委員 아직 업무과악을 다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다 못했습니다.

○李東奎委員 다 못하셨습니다? 업무과약을 빨리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보통 한 부서에 가면 업무과약을 어느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제 생각 같아서는 통상 1년은

○李東奎委員 1년 후에 발령나면 업무과약도 못하고 가겠네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렇지는 않겠죠.

○李東奎委員 최소한 그제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의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들은 업무과약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李漢龍 課長님께서 업무과약이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업무과약이 늦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뒤의 따로붙임에 보면 환경오염도 감사의뢰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환경오염 내역서가 여기서 이와 같은 식으로 어느어느 부분을 봐 주십시오. BOD, COD 이런 부분을 봐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관인도 없고 백지예요. 백지 상태로 그냥 올려준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내려보낼 때도 여기다가 무슨 도장을 찍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양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李東奎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것은 관인도장이 찍혀있고 어떤 것은 관인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원래 찍는 게 원칙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안 찍은 것은 왜 안 찍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환경 주무계장님이 누구시죠? 왜 안 찍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없는 게 관인도 안 찍혀 있는 서류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李東奎委員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염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채수를 해서 통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배출업소의 이름을 적거나 주소를 적거나 그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업소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것은 기재하지 않고 보냅니다. 우리가 채수하는 경우는 세차시설인 경우 또 염색시설인 경우, 병원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감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시험성적 통지가 오는 경우에도 어느 업소라고 명시가 되지 않고 우리 접수번호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감사항목들을 그것이 기준치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치가 오버했을 경우에는 배출부담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런 과정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李東奎委員께서 지적해주신 관인을 찍었다 안 찍었다 하는 사항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중요하시면 지금 종로구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제대로 관리감독 또는 감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저희가 법으로 수질환경방지법에 의해서 년 1회 우리 구에 허가 신고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꼭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년 1회로 그것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아까도 千相旭委員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까라는 기준치 이하로 소규모업소는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저희가 기준치 이상 신고대상업소 불문하고 일제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 서류가 하나씩 전부 검토해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는 게 나타납니다. 전결란에, 협조란이라고 했지만 주무계장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된 사안에서 그 다음에 그 주무부서의 과장한테 전결을 받아서 또 국장한테 전결을 받고 부구청장 전결을 받아야 됴데도 불구하고 전결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

다마는 공식적인 서류를 의뢰하면서 관인도 찍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는 곳은 종로구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李東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주무계장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들이 와서 실제로 업무과약을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무계장님! 주무계장들이 자기 분야의 맡은 일을 또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과장들한테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곤란을 겪는 게 우리 과장들입니다. 새로 부임된 과장들이 항상 저희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해보면 과장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은 업무과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여기 앉아 계신 주무계장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맡은 업무,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정도의 업무분석을 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헌날 죄도 없는 과장들은 저희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질타를 당합니다마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주무계장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과장한테 업무과약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계장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바뀐 과장들이 3개월 이내에 업무과약을 못했을 때는 그 주무계장들 처리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生活福祉局長님!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李東奎委員** 주무계장을 모셔 가지고 그 부분을 철저히 교육 또는 지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우선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평화실업, 대승기업, 신창기업 3개의 대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행기업의 쓰레기처리용량이나 봉투 판매수, 보유차량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것들을 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또는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님!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목표를 수립할 때 기초적인 자료가 통계죠. 통계, 그렇죠? 통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주민이 20만명인지 18만 9,000명인지 18만 7,000명인지 그 통계자료가 정확해야만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의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게 통계가 전부다 엉터리예요. 통계가 안 맞아요.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2000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33쪽을 보세요. 보시면 보조금 배정현황에 '99년도에 다섯 군데에 56억 1,677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56억 1,677만 5,000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8쪽을 보시면 계장님! '99년도 행정감사자료 208쪽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의 통계수치가 같아요. 그런데 '98년도 통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올린 자료는 '99년도 통계예요.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99년도 행정감사자료 208쪽에 있는 자료와 2000년 행정감사자료 133쪽에 있는 통계자료 숫자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한 자료는 '98년 자료이고 한 자료는 '99년도 자료예요. 이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결연실적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자료 211쪽을 보시면 똑같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달라요. 세대수가 줄면 당연히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세대수가 줄었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네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99년도 자료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99년도 자료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2000년 자료 190쪽을 보면 동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 및 수입액 통계가 있는데 '99년도 감사자료 272쪽을 보면 '99년도 수집실적과 판매액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190쪽 하단을 보면 2000년 수입액 중에 판매액이 8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의 상단에는 2,1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安載弘委員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쪽을 보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의 통계도 안 맞아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 다음에 192쪽 이 통계도 엉터리입니다. 우선 대충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행정만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도대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치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통계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불러드린 내용 중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통계가 이렇게 틀리느냐 이것입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99년도하고 '99년도 이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실적이 잡히는 것이 한달 이후에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추측컨대 그것이 한달 11월까지 통계분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安載弘委員 내가 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자고요. '99년도 자료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10월까지의 자료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전 '99년도 행정감사자료 '99년도 8월을 보면 도대체 표시도 안 해놨어요. 이것이 언제까지의 자료인지조차 안 나와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을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성의가 있다면, 의회도 잘못되었어요. 의회 전문위원! 잘 들으세요. 그 감사자료를 작성하면 누가 작성했는지 그 기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것을 주고 감사하라고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자료 받아요? 이거 의회에서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지요.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또 그 자료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료작성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도 각성하세요. 그리고 청소과장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9년도 자료가 10월까지의 자료라고 치더라도 2000년 자료 사직동 자료를 보자고요. 그것을 보면 사직동의 수집실적이 3,727kg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액이 575만원 이 통계가 맞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安載弘委員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래요. 글씨를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실 때에는 적어도 그 자료가 제시된 자료를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고 의회에 감사를 받으러 오셨나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동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겁니다. 판매액은 33만 1,000원이고 수집액이 5,750kg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왜 이게 재미있느냐 하면 통계수치를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구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각 동의 자료가 거의 유사해요. '99년이나 '99년 당시의 감사자료조차도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鄭課長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72쪽에 나와있는 이 자료가 설사 '99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각 동의, 예를 들어서 청운동을 비교해 보자고요. 청운동의 '99년도 수집실적이 1만 2,920kg이고 판매액이 74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세요. 똑같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나는 도대체 신뢰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일찍 왔으면 자료를 다시 내든지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나오세요. 누군지 청소행정과의 통계를 작성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각 과마다 불러주세요. 이 통계가 잘못되면 예산, 감사 할 필요 없어요.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답변 준비하세요. 아까 부른 자료 있죠? 사회복지과는 엉터리 통계를 고치세요. 순 엉터리예요. 150쪽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보세요. 이것은 또 '99년도 자료 211쪽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받고 통계를 뽑고 과장이라고 앉아있어요? 통계조차 제대로 못 맞추면서. '99년도 10월 30일 기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자구요. '99년도 자료는 10월 30일을 기점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인정을 합니다. '99년도 10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이입해 보세요. 통계가 '99년 10월 30일 현재 1,282세대 2,184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363세대 2,296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거택생활보호대상자를 보자구요. 지금 2000년도에는 590세대 654명입니다. 작년에는 637명이니까 늘어났어요. 그것도 맞다고 치자구요.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작년에 190세대에서 금년에 155세대로 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자활보호대상자 인원은 작년에 328명인데 378명으로 늘어나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껏 사회복지과장들이 자활보호대상자나 생계보호대상자 숫자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통계가 맞습니까? 세대수가 작년보다 40가구가 줄었는데 세대원은 늘어나요.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생활보호자 숫자는 말입니다. 매달 틀립니다. 우리가 매달 시에다 보고를 하는데요

○安載弘委員 매달 틀리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통계가 맞을 수가 없죠. 인정해요. 그런데 세대수가 지금 자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세대수가 좌우지간 여하튼 간에 190세대에서 155세대로 35가구가 줄었잖아요? 세대수가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인원이 늘었어요. 숫자의 마술입니다. 왜 그래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입이 심하거든요. 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오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한 세대라는 개념이 될 수 있고 한 세대가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대수가 줄면 부양가족수가 줄어들죠. 늘어나면 안되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틀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입이 심하기 때문

에 가족이 많은 사람이

○安載弘委員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왜 통계자료가 그러냐는 거예요. 돈이 나가니까 없는 사람을 유명인물을 만들어서 무슨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지불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통계만 놓고 볼 때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35가구가 줄었잖아요? 이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100% 신뢰를 한다고, 오차의 범위를 인정하지 말자구요. 35가구가 줄었는데 왜 세대수는 증가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통계가 잘못되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생활보호대상자 통계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다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전출입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시에

○安載弘委員 제가 질문드리는 기본 취지는 통계가 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의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여러 가지 네 종류의 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감을 찍고 온라인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유명인물이 아니고 가공인물이 아니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예요. 숫자. 통계숫자가 안 맞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 죄송합니다. 물론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지출된 숫자는 맞습니다. 그 집계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되는데 기존의 자료 표를 보고 거기에다 맞춰서 숫자를 넣다보니까 오타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어제 저녁에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각 과가 공히 통계 숫자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부서가 말이죠 숫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국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 환경·위생의 문제 또는 지역경제의 문제, 도시가스 문제 등 이런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업무의 폭주에도 싫은 표정 안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격려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다만 통계 수치가 너무 엉터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황당하더라고요. 통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류된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99년도 예산에서 말이죠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가정복지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75억인데 불용액이 13억이예요. 그리고 유아복지는 30억인데 불용액이 7억이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통계가 비교적 정확했으면 예산편성도 비교적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뽑으라는 겁니다. 통계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고 통계가 틀리면 국가의 통계가 다 틀려요. 구의 통계가 틀리면 다 틀린다고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제가 불려드린 사회복지보조금 이 내용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전년도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베껴거나 새로 뽑지 않고 그대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맞습니다. 그 품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어제 그제부터 심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국장님이 솔직하게 시인하니까 부드러운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하나하나 이런 것이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떻게 각 과가 공히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우리 각 과장님들이

계실텐데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통제가 틀리는지
제가 놀랐다니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
에 앉으셨던 계장님들도 좀 대충 내면 되겠지 그
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돼요.
계장님들이 작성하잖아요? 주임들이 작업해서
계장님들한테 올리면 계장님 도장 찍고 계장님이
또 올리면 과장님 도장 찍고 과장이 또 올리면 국
장님 도장 찍고, 뒤에 있는 분들이 작성을 잘해야
돼요. 통제는 여러분들이 통제부터 고쳐나가자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지출결의서에
대한 문서를 검증을 해봤는데요 사회복지과의 어
울마당하고 영어이야기대회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종로여성문화센터의 강사료가 매월
지급되거든요. '99년도 열두 달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문서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
어서 '김순례 외 7명' 하고 '계좌입금' 이렇게만 해
놓고 계좌입금표도 붙어있지 않고 어느 센터에
'누구누구 외 몇 명' 하면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수령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매월 지급한 것으로 이것 하나 한 장만 되어
있거든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그것은 지출결의서만 카
피를 해왔습니다. 전체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문서 검증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몽땅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카피해오지
말고 이것은 다 가져온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맨 처음에 지출결의서만
가져오는 줄 알고 카피를 다 했는데요

○千相旭委員 이것은 나중에 보고, 그러면 문서
검증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무슨무
슨 무엇에 대한 첨부서류 그렇게 가져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참 봐야 되니까 생략
하고, 청소행정과 거기에 말이죠 일반쓰레기, 음식

물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실명제를 실
현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애깁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실명제도라는 것은 음식
물쓰레기 같은 경우어나 일반쓰레기에서 그 담당
자가 일반주민들이 배출할 때는 이것을 본인이 제
대로 했는가 해서 본인의 이름을 쓰레기봉투에다
쓰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을, 잘못 배출
한 사람을 얼른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에서 도입이 된 건데 그렇지만 시에서 나온 결과
자료를 저희들이 요약한 겁니다. 노원구에서 한
번 '97년에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
실명제가 확산되지 못한 주요 사유가 쓰레기를 배
출해놓고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
기봉투에 자기 이름을 위에다 써놓으니까 기분도
그렇고 야간작업을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플래
시를 들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의
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일반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나중에 쓰레기를 우리가
보통 까만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 나머지 그 봉
투를 또 재활용봉투에 넣어버리고 이런 상황도 벌
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종량제를 위반하고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협조도 안하
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것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
고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것을 정리한 것입
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에 인사동에 외국인들이 와서 말입니다. 그야말
로 형편없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
그것을 지적해서 화장실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그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인사동에 관한 화장
실 문제는 시에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연구보고
서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
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화장실
용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되
어서 아마도 시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화장실 담

당팀장들과 얘기해본 결과로는 간이화장실 형식으로 인사동에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문화탐방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 부속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히 놔두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기를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문화의 거리 탐방로가 완공이 9월말까지인가요? 9월 말까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완공되면 특히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많이 다녀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되 공간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주변에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는 구청이 맡고 화장실은 개방하는 걸로 해서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대형화해서 만들어놓으면 외국인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 인사동 그 골목에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들 화장실은 수거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소위 현대화된 화장실은 조사를 해서 건물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청소는 우리가 하고 이용은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돈이 필요 없어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장실 안내표지판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千相旭委員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표지판이 없어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협의가 되면 부착작업을 할 겁니다.

○千相旭委員 건물에 표시를 하면 안 보입니다. 요소요소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영어, 중국어, 앞으로 중국인이 많이 옵니다. 그런 표시를 해달라는 것으로 다시 얘기

합니다. 지금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종로는 수치스럽게도 가끔 가다가 반입정지를 당하는데 반입중단을 여러 번 당했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김포매립지 측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매립 자치구는 다 지금 주기로 반입정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千相旭委員 우리 종로가 제일 반입정지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실제로 그렇게는 아닙니다. 실제로 밭보인 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20일 주기로 되고 저희들은 40일 주기로 작년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종로지역에 밤 10시 11시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가관입니다. 시커먼 봉투에 쓰레기를 내놓고 물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나가고 정말 종로답지 않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직접 수거하지 않죠? 위탁관리합니까? 대행업체가 있죠? 그분들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돈만 업소에서 받아가고 청소를 제때에 안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나오면 한 9시까지도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영업하시는 분이 12시쯤 지나서 쓰레기를 내놔야 되고 12시부터 3시, 4시까지는 청소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말입니다. 서울시내에, 국제도시 서울이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리고 종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종로 이 화예식장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죽 나와서 약국들 있는 데를 돌아서 종로3·4가까지는 형편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야간순찰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형태의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물이 줄줄 흘러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좀 선진국 형으로 말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를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행구역 확대 문제 때문에 음식물 처리나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면에서 종합상차장 내지는 재활용처리장이 같이 된 데가 부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방금 즉시 그쪽으로 옮겨서 보관했다가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게 우리 종로 쓰레기 문제의 커다란 한계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펴놓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시설물이라고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전혀 동네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걸 특히 타구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 트라이를 해왔지만 그것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어떤 부지가 있나 없나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러한 대형시설물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하다 못해 군부대 측에 북악스카이웨이 들어가는 쪽에서도 나름대로 군 관계자하고 저하고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얘기해왔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거기도 또 청와대 쪽 지역이고 밤에 작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절차라도 개선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기동처리반을 활용을 하고 많이 늘려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청소행정과장께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 재활용품 수거 통계를 보면 잘하는 동이 있고 전혀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곳은 대행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지역은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대행지역이라 대행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동별로 그 지역에 어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어

떤 경우는 통합해서 다른 동에서 치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균형치는 비슷한데 인구수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대행지역이 세 군데가 있고 '99년도 연간 수집실적이 100만원대에 이르는 동이 있는가 하면 무려 5,000만원 이상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 이하 그 지역의 동직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자원 재활용으로 외화를 절약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외화도 줄이고 또 전보다 돈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수거하는 수집실적을 올린 데가 있는가 하면 100원도 못되는 데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 무엇을 논의합니까? **清掃行政課長**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李炳滿**局長님은 힘이 센데 질타해서 그것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의무적으로 실적을 부여하세요. 의무적으로 실적을 부여하면 할 것 아닙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명이면 반으로 5,000이 기준이다, 인구가 5,000이면 2,500이 기준이다 그것을 정해주라는 겁니다. 꼭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재활용 실적은 그렇게 동별로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목표량을 주라는 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그리고 동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많이 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99년도 실적이 이렇게 미흡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잘한 데도 몇 군데 있는데 대개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통계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

암동이 실적이 좋은데 부암동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다, 부암동도 입지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도 부암동장 표창상신을 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와요. 이 기준을 잡아주라는 얘깁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각 동별로 목표를 시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李炳滿 局長한테 꼭 당부를 하는데 오전에도 경로당 관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낙후된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洪起瑞 運營委員長도 질타를 하셨는데 어떤 동은 경로당이 5,6개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가 있고 인구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22평짜리 경로당에 70명의 인원이 수용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종로 같은 경우는 45평인데 2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낙후된 데는 신축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당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 관계, 요즘 지역경제가 중요합니다. 지역경제가 우리 국민 경제생활을 향상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취업정보은행 운영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 170쪽을 참고하세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 취업정보은행은 '98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제67호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IMF 여파로 구인접수가 4,613명이 되었습니다. 구직자는 8,909명이 구직신청을 했고 저희가 알선은 4,977명을 알선했는데 그 중에서 취업된 분의 수가 1,122명으로 상당히 작년 때에는 저희 취업정보은행이 활발하게 나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실적을 보면 구인접수가 1,247명이고 구직접수가 331명, 알선수가 1,153명, 취업수는 121명으로 그 실적이 상당히 '99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현상은 '99년도에는 구인접수 수보다 구직자수가 거의 배가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구직자가. 그런데 2000년도 근래에 와 가지고 실업률이 정

부 발표대로 상당히 4%대로 지금 안정적인 상태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구인자는 1,247명인데 직업을 찾아주시오 하는 사람 구직자수는 331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선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기업체들도 많고 벤처기업체들도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직접 내방해서 구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줘도 별로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알선을 해줘도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뜻 응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댁에는 좋은 직장을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필요로 하는 업체를 금년에도 439개 업체를 방문해서 홍보 안내문이라든가 리플렛 같은 것을 돌리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좋은 직장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은 공채라든가 인사파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 서비스업체라든가 기업체라도 조건이 열악한 이런 3D업종 비슷한 그런 수준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좀 응하는률이 떨어졌습니다.

○千相旭委員 쉽게 얘기해서 잡부라든가 무슨 식당의 종업원이라든가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렇죠. 파트타임이라든가

○千相旭委員 그런 구인접수는 그런 게 많이 온다는 얘기죠? 필요한 사람은 식당 그런 데 또는 공사장 현장 같은 데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런 데는 안 가겠다는 거죠. 조금 여유가 생기다보니까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데는 안 가겠다고.

○千相旭委員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잘 몰라요. 취업정보은행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이게 지금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노동부라든가 전국적인 전산망이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주로 서울시만 게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저희 구인접수가 우리 구에 있는 기업체가 저희한테 인터넷망에 등록된 것이 접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하는 것도 다 뜬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어떤 원하는 업소에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 구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개를 알선합니다. 각 구가 교차하면서 서로 소개를 해서 원하는 직장과 맞아떨어지면 취업이 되는 거죠.

○千相旭委員 그런데요. 인터넷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구직자는 인터넷을 열어서 확인도 하고 저희한테 전화라든가 직접 내방을 해서 취업알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지금 332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千相旭委員 좋은 제도니까 우리 종로사랑지에 좋은 면에 앞으로 종로사랑지에 홍보란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좋은 칸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세요. 이것은 종로구민에게 줄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을 동별로 한 것을 보니까 어느 동은 6명이 미수령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312명이 미지급된 동이 있습니다. 이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그 만큼 동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교통수당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

고 지역경제과 아까 이자관계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安載弘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66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5,230만 6,000원으로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5,231만 21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2원을 털어 버리더라도 이 자료가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5,230만 6,000원이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온 것을 보니까 5,231만원, 4,000원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명색이 1년에 한번하는 행정감사인데 자료가 더군다나 계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66쪽을 보시라고 2000년도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가 5,230만 6,000원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 자료에는 있는데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자받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깐 5,231만 212원으로 나와있다 그런 얘기지 감사자료 66쪽에 기금현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종합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洪起瑞委員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은 5,23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자가 5월까지 들어온 이자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洪起瑞委員 그런데 금방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더니 5,231만 212원으로 뽑아왔어요. 그러면 이따가 1시간 뒤에 자료를 뽑아오라고 하면 오천이백삼십몇 만원으로 뽑아올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느냐 이 말이지 그런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가 연 8%, 9% 왔는데 사실 아까 담당자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예산을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1년 6개월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역을 해야 되니까 1년 6개월을 못 채운다 이거예요. 6개월 이내로 나갈 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洪起瑞委員 6개월 이내로 나가면 본 이자를 수수료 3%를 떼고 나면 이자가 5.7% 내지 5.4%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 여기 이자표시를 보니까 전부 10.36, 10.25, 9.21, 9.5, 8.77, 8.8 이렇게 받는다는 이자 배정표를 가져온 거야 그러면 이 돈이 안 맞는 거예요. 8%대로 따지면 이자를 맞춰보면. 그래서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규명을 해보니까 수수료 3% 내지 2.5% 떼는 것을 안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떼어야 이자가 맞을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것은 뭘 수밖에 없습니까.

○洪起瑞委員 본 위원은 은행에서 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자표를 정확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8%인데 수수료 3%를 떼면 5.8%이다 비고란에 이렇게 해줘야 5.8% 받은 이자가 예를 들어서 1,669만이 맞는 거지 8.55%로 하면 1,669만보다 더 오버가 되어야 맞다 이 말이야, 이자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하더라도 정확도를 기하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알 아볼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금리는 어디를 가도 많이 받아봐야 7.7% 내지 8%밖에 안돼요. 금리가 떨어져서 옛날 같으면 그런 많은 금리가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기업자금이나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을 함에 있어서 1년 6개월씩 은행에다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놔둘 수도 있고 2개월 놔둘 수도 있는 건데 이 자료에다 8%, 9%를 준다고 하니깐 우리는 엄청난 이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간단 그런 얘기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3% 2.5% 감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는 그런 표시를 안해 가지

고

○洪起瑞委員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다음부터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더군다나 이 계수라는 것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차이에 엄청난 계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기해줘야만이 된다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지회를 포함해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12대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지원하는 단체는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환경녹색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원이 된 걸로 이삼백 정도 환경활동한 것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주부환경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그겁니다.

○洪起瑞委員 거기 회의참석 한번 하는데 회의수당을 5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지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洪起瑞委員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출을 안합니까? 회의수당으로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올해는 그게 없습니까.

○洪起瑞委員 그리고 각 동을 돌아다니다보면 헌옷가지 모으는 의류함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청소과입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치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洪起瑞委員** 별개이지만 우리 청소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모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지각색이에요. 하나는 노란강통을 갖다놓고 또 하나는 의류함에다 해가지고 해놓고 또 하나는 청색강통에다가 해놓고 하나는 커피색으로 해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환경을 누가 보더라도 해친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단일색으로 규격품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4가지 5가지로 설치를 해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쾌하고 불미스럽고 환경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17分 會議中止)

(15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짧막하게 해주시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철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진 공문에 관인이 없이 보내준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묻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인을 찍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거의 관인생략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관인생략이면 그 부분에 관인생략이라고 써져 있어야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문이 허위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 재차

○**李東奎委員**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것이 필요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어떻게 이런 것을 비치해 가지고 여기에다 보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인도 없이 관인 생략이라면 관인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럼 관인도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서류라고 보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여기에는 뭔가가 있죠?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李東奎委員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관인도 없이 이것을 비치해 놔어요? 어느 특정업체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관인 없이 어느 특정업체만 이렇게 비치해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좋아요. 아무 것도 없다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둘 중의 하나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더군다나 환경보건연구원이라는 데서 받은 문서가 관인도 없는 것을 비치해놓는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을 안 했든가 여러분께서 일을 안 했다는 표시는 확인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감사하면서 본 위원에게 적발이 된 겁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환경보건연구원에다 팩스로 다시 요청을 해서

○李東奎委員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그때야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해야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시민행정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원장을 가져오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원장 자료를 조작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원장 조작해 가지고 들어온 자료가 환경위생과 영업정지업소 관리카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장에 있는 위원들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 그대로의 서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해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조작한 것이 맞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그 서류를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李東奎委員 조작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밝혀드릴까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말씀해 주십시오.

○李東奎委員 주무계장께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같이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조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글씨로 아주 정연하게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깐 '그 동안에 한 군데도 나가보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 때가 되어서 서류는 요구를 하고 다급해서 지금 썼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장이 아니에요. 거의 다입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보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인정한 계장이 누구예요?

(○關係公務員 關係官席에서 - 접니다.)

○李東奎委員 엄중 경고로만 해주십시오.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조작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겁니다. 고발조치도 있겠습니까마는

○委員長 李憲九 지금 우리 李東奎委員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關係公務員 關係官席에서 - 카드를 미리 정리를 못해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오늘 했습니까?

(○關係公務員 關係官席에서 - 예.)

○委員長 李憲九 앉으세요. 정말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성한 자리에서 구의원들을 앞에 놓고 그런 허위기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기재해왔고 또 주무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해서 감사에 상당히 누를 끼쳤습니다. 정식으로 경고 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셨다고 인정을 해주셨지요?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李東奎委員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이나 주무계장들은 과장이나 국장을 앞에 두고 눈뜬 봉사로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李東奎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우리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서 가지고 아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소들 관리대장 또는 폐수배출업소 같은 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량이 대단히 많죠? 그렇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李東奎委員 업무량은 폭주하고 감당은 못하겠다고 혼자서 해나가기 어려운 것 우리 위원들도 인

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건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정책회의 하실 때 반영시켜서 우리 직원들을 끌고루 배분해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받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기록카드에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로구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해주시고 업무량이 많은 것 본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할 것이고 해서 정말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정착된 그런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예, 감사합니다.

○李東奎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제가 아까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은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사안들을 기록했다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이상이 있는 사회복지과 133쪽 감사자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139쪽 청소년 이용시설 관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50쪽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이것도 고치시고요. 환경위생과의 폐수배출업소 172쪽 그것도 착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190, 191, 192쪽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다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종로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것을 제외하고 10억 7,863만원어치 쓰레기봉투가 팔렸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맞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업체별 봉투판매수익

○安載弘委員 아니, 업체별 그러니까 대행기업을 제외한 종로구 일원의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10억 7,863만원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이것은 맞는 금액입니다.

○安載弘委員 그 다음에 '99년도 종로구 대행업체 지역을 제외한 쓰레기 총 발생량은 4만 7,263톤 맞아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安載弘委員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다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그 뒤의 계원들이라도 조사를 해서 과장님한테 제출을 해줘야 과장이 답변을 하죠. 청소행정과 계원들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내신 자료 업체별 쓰레기 발생량이 대행업체 3군데에서 '99년도에 치운 쓰레기 총량은 5만 8,929톤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9억 1,784만원 이 통계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들께서는 주위를 환기하시고 자, 지금 비교를 해보자구요. 종로구 전체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곳이 쓰레기 발생량이 4만 7,263톤이고 대행업체 3군데에서 치우는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치우는 쓰레기 총 발생량이 5만 8,929톤이에요. 그러니까 두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이 두 동을 제외한 종로 전체 쓰레기 총량보다 많다는 것이고, 쓰레기 대행수거업체 두 군데에서 봉투판매수입이 39억이고 종로구 2개동을 제외한 17개동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총액은 10억이에요. 여러분들 이 숫자의 맛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통계의 중요성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통계의 중요성입니다.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의 '99년도 예산총액이 167억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된 예산이 167억이에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행업체를 늘려가려니까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鄭課長은 지금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취지는 그겁니다. 2개 동을 제외한 종로구 총 쓰레기 수거량이나 봉투판매액이 2군데 2개 동 3개 업체가 시행하는 쓰레기 수거 처리량이라든가 업체별 봉투판매 수입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그러니까 아무리 과장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장님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 국장님은 신경을 좀 쓰셔서 어느 것이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동시에 민원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쓰레기를 잘 수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예요. 제가 이것을 만들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한 말씀 하시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대항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봉투판매량도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치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항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항지역으로 가게 되면 물론 주민들의 일부 불편도 있겠습니다마는 불편이 정당한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많이 대항지역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에 대항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조측하고도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조측에서 갑자기 줄이고 대항지역을 확대하면 되겠느냐 저하고 과장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정원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247명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기존 인력은 저희가 아마 대항구역지역에서

나오는 인원은 지금 청소원들이 거의 휴가를 못갈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인원보충을 해주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별도 인력이 물론 쓰레기량은 줄어드니까 그 인원 가지고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는 안될 겁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저희가 특정집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문제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계속하고 이번에 대항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대항구역 주는 것도 저희도 진짜 잡음 없이 원만하게 대항구역이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온 것도 얼마 안되고 청소과장도 온 지 6개월이 안됩니다마는 잡음 없이 대항구역을 넘겨주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고 좀 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고생하는 청소과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청소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행정이나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장님 밑에 4개 과가 있는데 다 잘하세요. 지역경제과도 잘하시고 사회복지과도 잘하시고 조금 전에 李東奎委員에게 혼나신 李漢龍 課長도 잘하시는데 청소행정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치워져야 한다는 그런 소위 비능률이죠. 결국 말하자면 대개 보면 경영사업 수완 중에서 소위 사업의 아웃소싱을 해결 것은 쥐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자치단체의 몸은 가벼워지고 예산은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남은 문제는 노조와의 협의는 민간위탁을 못하니까 이슈화되니까 그런 것을 지혜를 잘 짜내 가지고 종로구 전체의 모든 청소 문제를 그러한 목표를 세워서 가지고 2002년까지는 목표를 세워서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협의가 아니지 지시

를 하셔가지고 2002년까지는 아웃소싱을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저희가 대행구역을 전부 없애려는 것도 청소원 노조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청소원을 없애고 전부 대행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위 집회 문제, 특정지역 청소 문제 그리고 기동반 문제, 여기에는 가로나 또는 겨울철 눈 치우는 문제 이럴 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인력을 동원하지만 대행구역에서는 동원이 힘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를 해가면서 적정 숫자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까 대형업체 계약서라든가 잠깐 봤는데, 청소기동반 있잖아요? 그것은 존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특정지역이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그런 지역에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역수로 많잖아요? 260명 정도 되나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이번에 엇그제 18명이 정년을 해가지고 2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여하간 청소행정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하고 2002년까지 우리 鄭課長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이 잘 하셔서 근사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분야에서 1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3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번째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종로통 같은 데 대로변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문제, 집회 문제 해가지고 그런데 3위까지 해서 아마 시상금이 나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정말 참 감사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다 있네요. 청소과 모든 분들, 생활복지국의 모든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들 많이 쓰시고,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 문제를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느라 애쓰는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집의 위치가 좀 나빠요. 즉 위치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떨어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 해결하는 묘안이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100m당 최소한 25가구가 있어야 공급을 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것을 소위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시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금 저도 아까도 安委員님 오시기 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위원님들 질문도 계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가 독점체제를 인정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독점체제를 인정을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문제의 열악함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현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도 제가 오죽해야 실무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수차 불러놓고 몇 번씩이나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가스회사에다 우리가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빗발치는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좀 무언의 압력을 가해보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 압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사업승인을 저희가 해주고 토목과에서도 도로굴착 승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가스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기금 운영에서 사용시설자금이라든가 공급시설자금을 대여해주는 정도 그런 것이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특별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심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공사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도시가스 공급회사한테 주의를 촉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정도가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

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이라든가 모든 규정을 만들고 있고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각종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건지 않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또 계획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도시가스 공급만은 반드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 데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제도상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아까 安委員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두 가지가, 100m당 25가구 규정이 15가구 내지 20가구로 좀더 완화되었다는 것과 수요가가 공사비 일부라도 부담할 경우에는 원하면 지금까지는 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완화해서 수요가가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지침 변경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공사비를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횡포적으로 약자인 수요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과도한 그런 공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간혹 가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수지역에서.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탁공사 제도의 표준단가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수요가가 업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다소나마 수요가가 옛날같이 완전히 수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업자들 간에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돈의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20만원이나 깎아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작년과 달리 조금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 회사도 이제는 조금 지역의 공사에 의원님이라

든가 이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보다는 전향적으로 자세가 많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고 원성을 사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적으로 더 보완을 할 점이 있으면 여러 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어떤 민원사항이 조그마한 부분도 지역에서 발생하면 즉각 현장에 저희 직원을 투입시켜서 분석을 하고 저희 구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회의에 늦게 오다보니까 도시가스 문제가 오전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 동은 특수지역이고 그래가지고 가구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 형태가 거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마는 굉장히 가구밀도가 낮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요청을 해도 제한되게 또는 지연되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독점체제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단니까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드러보겠는데요, 지역정압실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보통 가스관 시설이 저압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자면 그것을 가스업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을 중저압관으로 놓게 되면 거버너라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 거버너시설을 하게 되면 비교적 수월하게 m당 가구밀도가 낮아도 가스공급을 받아 소위 비용이 낮으면서 공급이 용이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래서 그쪽 평창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도 서울도시가스 측과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 중저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압으로 안되어 있는 지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좀 신경을 쓰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평창동 쪽의 수요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 버스 관계도 그렇지만 노선이 황금노선도 있고 취약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은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그만큼 독점을 준다는, 어떤 정부라든가 시에서 독점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만 골라서 하고 입맛에 안 맞는 데는 안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불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독점체제를 인정했으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고쳐나가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볼 작정입니다.

○**安載弘委員** 과장님! 마음에 든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게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그겁니다. 제도에 모순이 있다면 그 제도를 보완하고 고쳐나가고 끊임없이 시를 깨우치고 행자부를 깨우치고 관련부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안 난다, 왜 안 나느냐 따져가지고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허가도 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면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여기에서 3일째, 내일 모레까지 하면 5일째 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위원장도 계시고 각 선배위원님들도 계신데 다 몰라요. 솔직하게는. 다만 지적을 하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과장 답변처럼 잘못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지역이 그리고 그 분이 속한 그러한 생각들이 발전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금년도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금년에는 고치자, 방법이 뭐냐, 시에다 건의해야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건의문을 낼 테니까 의원님들도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

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행정 전반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의회도 같이 하고 집행부도 같이 하고 직원도 같이 하고 의원도 같이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바퀴론, 의회와 집행부는 양바퀴다, 따라서 같이 상호 의논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하면서 가야 종로사회가 발전한다. 그런데 바퀴가 한쪽으로만 돌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의회에서 아무리 독려를 하고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마이동풍, 우이독경하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한쪽 바퀴만 돌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자리만 돕니다. 정말 지역경제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서울에서 3위를 한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많지만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 죄송합니다. 짧막하게 한 1분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마이크를 얻게 된 것은 아까 어느 부서에 치우쳐서 또는 어느 분에게라는 그런 지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우리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모두의 일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각오 아래 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진짜 말로 하지 말고 경영마인드입니다. 앞당겨야 됩니다. 뭐든지 술선수범하고 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야죠. 그런 쪽에서 새로운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고성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
생과장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 모
로 처음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하직원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깨우침을
받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
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정말로 오래간만에 심도있는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많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지금 安載弘委員이나 李
東奎委員께서 오늘의 감사에 대한 강평과 비평가
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로 심
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록 생활복지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구정 업무에서 통계가 틀리면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모든 것이 틀린다고
봅니다. 저는 한 6년 전에 우리 중친회의 돈 한
35억원이라는 돈을 총무로 일을 하면서 만지다보
니까 수기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길이 없어서 컴
퓨터를 배웠습니다.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엑셀을
주로 배워가지고서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정
확성도 뚜렷하게 나오고 상당히 편리했다라는 얘
기죠. 제가 오늘 놀란 것은 여러분들 앞에 컴퓨
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보
고도 전부 컴퓨터에 수록해 가지고 다 되었을 텐
데 어째서 이런 통계에 오류가 생겼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고 계시다가 이제 감사기간
이 돌아오니까 이것 채워야 되니까 대충대충 적은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이런 중친회
의 것을 이런 카다로그에 넣어가지고 이런 디스켓
에 넣어 가지고 매년 총회 때에 그것을 봐가면서
금년에 한 것을 거기에다 인서트만 해가지고 해놓
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성
의 부족이라고 보고 정말 금년 가을에 행정사무감

사에도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제가 제
안을 해서 우리 종로구 전체의 모든 통계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하시
느라고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9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
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
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
니다.

(16時11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